

사회

# 토착비리 수사 공직사회 '술렁'

## 검·경 전방위 확대 ... 광주·전남 이달들어 매일 1~2건

### 장성 5급 공무원 '땅 팔아 상납 승진' 의혹

### 해남 공무원 수뢰 ... 단체장 7~8명도 조사

검찰과 경찰의 공직부정 및 토착비리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광주·전남의 관가와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하루 1~2건 꼴로 공직부정과 관련된 사건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는 데다 현재도 검·경에서 15~20건 가량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장성경찰에 따르면 최근 "땅을 팔아 승진했다"는 의혹을 받은 장성군청 5급 공무원 A씨의 부인과 동생의 계좌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등 장성군 인사부정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장성군 남면의 땅 2필지를 1억1천만원에 처분한 점에 주목하고 "땅을 판 돈을 '윗선'에 주고 승진했다"는 첩보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또 A씨 부인과 동생이 1억2천만 가량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 돈의 성격과 흐름 등을 추적 중이다.

관급공사를 둘러싼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로 잇따르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4일 공사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시공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해남군 7급 공무원 B(50)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6월 중순에 자신이 감독하는 소

하천정비공사의 시공업자 C(46)씨로부터 향응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지난 12일 관급 자체 납품 과정에서 브로커 등과 결탁해 접대를 받은 화순군청 공무원 D(45)씨를 입찰방해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D씨는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2억3천만원 상당의 관급 자체를 수수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다.

광주광산경찰도 같은 날 의료장비 납품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광산구청 공무원 E(53)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E씨는 지난 1월 중순에 구청 보건소 앞에서 의료장비업자 F씨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사 결과 E씨는 이 업자에게 20여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납품 대가를 감요한 것으로 드러나 총격을 쫓았다.

경찰의 '칼날'도 날카롭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0일 수해복구 공사 입찰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전남도청 사무관 G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G씨는 공사계약 업무를 담당하면서 장흥군 수해복구 공사입찰 과정에서 2순위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순천지청은 또 지난 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홍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검·경의 선거법 관련 수사도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검찰에서 선거법 위반과 인사비리 의혹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광주·전남 단체장은 7~8명에 이른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영터리 국제결혼 30개 업체 '철퇴'

## 광주·전남에 3개 ... 수익원 부당이득

광주·전남 등 전국 30여곳의 결혼 정보업체들이 네팔의 무자격 브로커에게 국제결혼 업무를 맡기고 부당이득을 챙겨오다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결혼 정보업체에 대한 등록제 전환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결혼업체에 대해 무더기로 '철퇴'가 가해졌다는 점에서 향후 경찰의 대대적 단속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경찰은 14일 무자격자에게 국제결혼을 위임해 부당이득을 챙긴 전주 A씨(55)와 광주·전남 B씨(55)를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로 구속하는 등 국제결혼을 둘러싼 범죄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나씨는 지난해 8월에 한국인 남성 3명에게 중국인 여성 3명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고 1건당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원에서 많게는 수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제결혼을 중개하기 위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 국제결혼 중개업 등록을 하고 5천만원 상당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당시 정부는 국제결혼 과정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제결혼정보업을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김씨 등은 결혼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자격자인 이씨를 고용해 "3천달러(한화 350만원)를 내면 한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수법으로 현지 여성을 모집했다. 이씨는 국내 업체들을 통해 한국 남성들을 소개받은 뒤 현지 공무원들을 매수해 편법으로 결혼서류 업무까지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국제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나모(41)씨를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로 구속하는 등 국제결혼을 둘러싼 범죄 행위가 속출하고 있다.

나씨는 지난해 8월에 한국인 남성 3명에게 중국인 여성 3명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고 1건당 100만원씩 총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5천만원 '공짜술' 조폭 영장

광주서부경찰은 14일 유흥업소의 주인을 협박해 수천 만 원 상당의 '공짜 술'을 마신 광주 S와 행동대원 오모(35)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지난 4월 초 광주시 북구 운암동 기모(46)씨의 유흥업소에서 일행과 술을 마신 뒤 기씨를 폭행하는 등 9회에 걸쳐 4천900만 원 상당의 '공짜 술'을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alee@

# 광주 주택가에 신생아 버려져 경찰, 분만시설 탐문

광주의 한 주택가에서 신생아가 버려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오전 6시30분께 광주시 남구 월산동의 한 빈집에서 생후 10일 이내로 추정되는 사내아이가 버려져 있는 것을 주민 양모(69)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빈 주택의 뒷마루에서 맨 뒤편으로 검은색 여성용 겨울 외투에 싸여 스티로폼 상자에 담겨 있던 신생아는 경찰에 의해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졌다.

아이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지만 신원을 확인할 만한 문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13일 오전부터 아이 울음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는 주민들의 진술로 미뤄 아이가 최소 24시간 전에 버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신생아의 핏줄이 잘린 상태에 주목, 병원이나 조산원 등 분만 전 문시실에서 출산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광주지역 산부인과와 조산원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화순 '풍년 용놀이' 14일 '2009 화순 문화관광축제'가 열린 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에서 청룡문주인들이 '풍년농사 용놀이'를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여권 신원조사 접수 당일 처리 '호응'

전남경찰청, 90여건 전남지방경찰청 정보과는 14일 "지난달부터 '여권신청 신원조사 단속 방안'을 시행한 이후 90여건에 대한 여권 신원조사가 접수 당일 처리됐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17일부터 '여권신청 신원조사 단속 방안'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기존 3일 가량 걸리던 여권신청사 신원조사가 접수 당일 이뤄지고 있다.

또 그동안 1주일 가량 걸리던 공무원 인원용예정사 신원조사도 접수 당일 처리해 다음날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한기민 전남경찰청 정보과장은 "신원조회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관공이나 유학 등으로 출국하려는 여권신청자들이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여권을 발급받고 있으며, 공직자 채용기관의 신속한 업무처리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대법 "車 문 손잡이 잡았으면 절도 착수"

문을 열 목적으로 남의 차량의 '문고리'를 잡았다면 절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방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형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차량의 문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경찰에게 발각된 것은 차량에 침입하려는 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는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행위가 시작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방씨는 지난 2월께 목포의 자신의 집 근처에 주차된 A씨의 승합차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의 문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시도하다 경찰에 발각됐다. 방씨는 절도미수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지만 자신의 행위가 "절도에 착수한 것은 아니다"라며 항소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은 "차량 손잡이를 잡고서 경찰관에게 발각돼 멈춘 행위 만으로는 차량 안의 재물에 대한 소유자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차량 절도의 시작점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는 시점'이라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충장축제서 여중생 치마 속 물가 상다발 ○축제를 관람하던 여중생의 치마 속 물대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서엔 ○광주동부경찰은 14일 A(25)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충장축제 개막일인 지난 13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교복 차림의 여중생 B(15)양에게 접근, 자동차 옆쇠와 모양과 크기가 비슷한 소형 카메라로 B양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 ○여성을 뒤에서 얼짱거리는 모습을 수상히 여긴 시민들의 제보로 현장에서 불합한 A씨는 경찰에서 "인터넷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카메라로 찍은 것을 봤는데 호기심이 생겨 직접 해봤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비데프리카 개업 15주년 기념

# 노비타 비데 세일!!

집콕이 효도상을 인기!!

## 전국 최저가 판매

생각이 다른 비데 전문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비타 비데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BD-KA150  
290,000원  
219,000원 (부가세 포함)

노비타 비데 전문점 비데프리카 | ☎062-515-1144

"비데 전문업체에서 제공하는 비데가 훌륭한 이유입니다."

## 철저한 구조물 복원 및 연약지반 보강공법의 신개념!!

최첨단 컴퓨터 공법은 국내에서 개업된 지반소복복합형 신형공법

1. 철저한 구조물 복원 및 연약지반 보강공법의 신개념!!
2. 최첨단 컴퓨터 공법은 국내에서 개업된 지반소복복합형 신형공법
3. 최첨단 컴퓨터 공법은 국내에서 개업된 지반소복복합형 신형공법

대표점 및 지사 모집 ☎ 062-571-3001-2 / HP 011-604-0287